

10 여가와 문화

1)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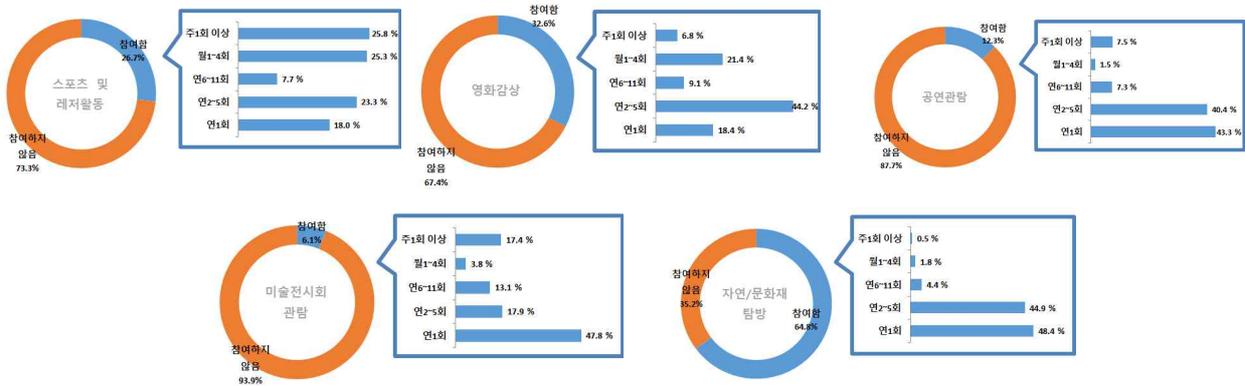
가장 많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활동은 「자연문화재탐방(64.8%)」

○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여부는 전체적으로「참여함」보다「참여하지 않음」이 많음

-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은「참여함」26.7%,「참여하지 않음」73.3%임
- 영화감상은「참여함」32.6%,「참여하지 않음」67.4%임
- 공연(연극, 음악회 등) 관람은「참여함」12.3%,「참여하지 않음」87.7%임
- 미술 전시회 관람은「참여함」6.1%,「참여하지 않음」93.9%임

○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자의 참여횟수는 스포츠 레저 활동「주 1회 이상」, 영화감상 분야에서「연2~5회」, 공연관람, 미술전시회, 자연문화재 탐방에서 「연1회」가 가장 많음

<그림 10-1>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횟수



<표 10-1>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여부 및 횟수

(단위: %)

	계	참여함	소계	연1회	연2~5회	연6~11회	월1~4회	주1회 이상	참여하지 않음
스포츠 및 레저활동	100.0	26.7	100.0	18.0	23.3	7.7	25.3	25.8	73.3
영화감상	100.0	32.6	100.0	18.4	44.2	9.1	21.4	6.8	67.4
공연(연극, 음악회 등) 관람	100.0	12.3	100.0	43.3	40.4	7.3	1.5	7.5	87.7
미술 전시회 관람	100.0	6.1	100.0	47.8	17.9	13.1	3.8	17.4	93.9
자연 문화재 탐방	100.0	64.8	100.0	48.4	44.9	4.4	1.8	0.5	35.2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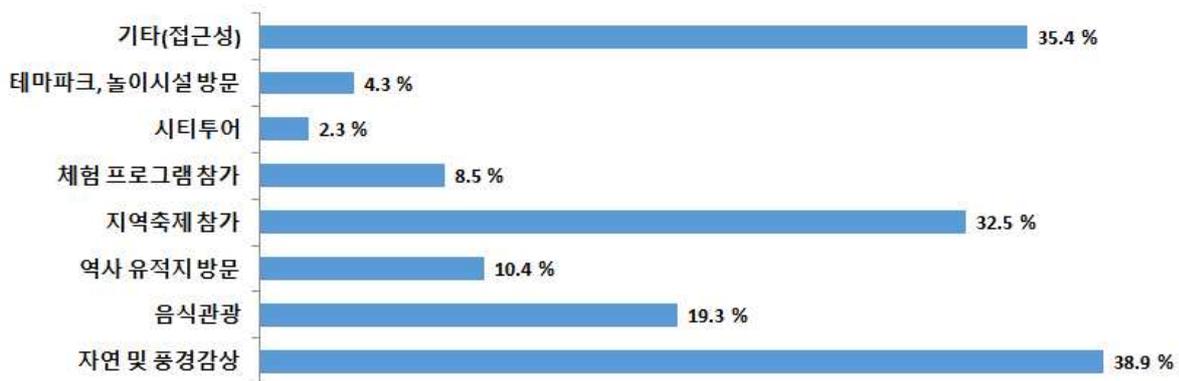
2) 전라남도 내 관광지 선택이유(복수응답)

전라남도 내 관광지를 선택한 이유는 「자연 및 풍경감상(38.9%)」

○ 전라남도 내 관광지를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자연 및 풍경감상」이 3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접근성)(35.4%)」, 「지역축제참가(32.5%)」, 음식관광(19.3%)」, 「역사 유적지방문(10.4%)」, 「체험프로그램 참가(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70세 이상은「자연 및 풍경감상」보다 「기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2> 전라남도 내 관광지 선택이유(복수응답)



<표 10-2> 전라남도 내 관광지 선택이유(복수응답)

(단위: %)

	자연 및 풍경감상	음식관광	역사 유적 지방문	지역축제 참가	체험 프로그램 참가	시티투어	테마파크, 놀이시설 방문	기타
2017년	38.9	19.3	10.4	32.5	8.5	2.3	4.3	35.4
중부권	41.4	18.2	6.0	25.0	5.1	2.0	4.4	44.9
북부권	40.6	14.5	8.0	44.5	10.7	2.3	7.0	17.7
서남부권	35.5	23.1	15.9	32.7	10.5	2.5	2.7	36.9
남자	37.2	20.0	11.7	33.9	11.1	3.1	4.1	32.2
여자	40.9	18.4	8.9	31.0	5.6	1.4	4.6	39.1
15~29세	42.3	15.3	14.4	31.2	29.0	4.9	11.0	21.7
30~39세	44.9	22.3	14.0	29.6	8.3	1.6	10.9	29.5
40~49세	39.2	24.4	10.2	41.0	9.6	3.8	5.9	26.7
50~59세	43.3	20.4	10.3	38.8	6.2	1.0	3.5	32.1
60~69세	39.3	21.0	9.9	34.0	4.7	1.9	1.2	34.7
70세 이상	31.2	15.5	7.4	24.0	1.6	1.6	0.4	52.5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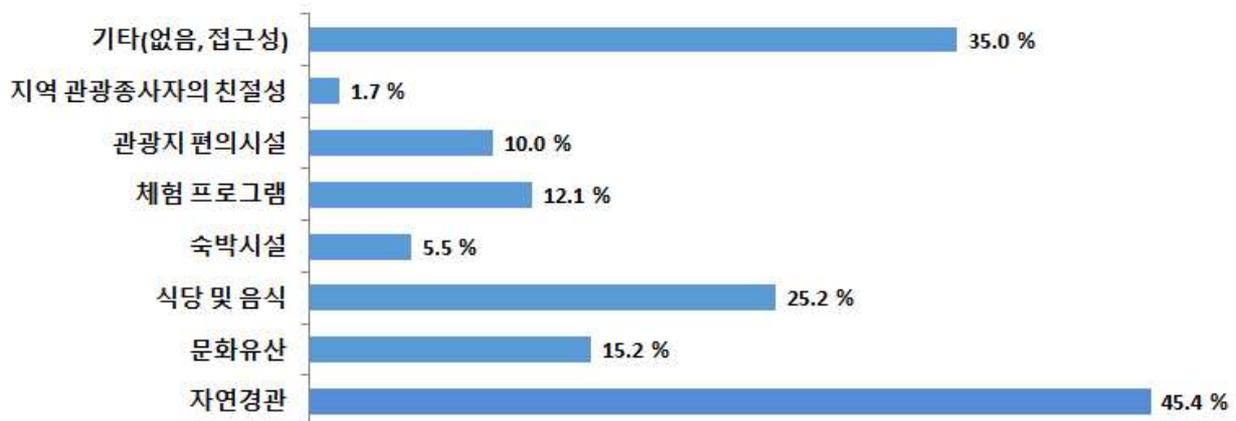
주: 지난 1년간 도내 관광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3) 전라남도 내 관광지에서 만족한 점(복수응답)

전라남도 내 관광지에서 「자연경관(45.4%)」을 가장 만족

- 전라남도 내 관광을 하면서 만족했던 점은「자연경관」이 45.4%로 가장 높고,「기타(35.0%)」,「식당 및 음식(25.2%)」,「문화유산(15.2%)」,「체험 프로그램(12.1%)」,「관광지 편의시설(10.0%)」,「숙박시설(5.5%)」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50대 이상은「기타」의 비율이 높음

<그림 10-3> 전라남도 내 관광지에서 만족한 점(복수응답)



<표 10-3> 전라남도 내 관광지에서 만족한 점(복수응답)

(단위: %)

	자연경관	문화유산	식당 및 음식	숙박시설	체험 프로그램	관광지 편의시설	지역 관광종사자의 친절성	기타
2017년	45.4	15.2	25.2	5.5	12.1	10.0	1.7	35.0
중부권	43.4	4.8	26.9	4.1	11.6	10.7	1.3	44.0
북부권	56.9	13.0	22.1	7.4	12.6	9.7	0.5	17.7
서남부권	40.5	26.4	25.4	5.7	12.2	9.4	2.7	36.6
남자	45.8	16.7	24.9	6.0	13.9	10.6	2.5	31.7
여자	44.9	13.5	25.4	4.9	10.0	9.2	0.7	38.7
15~29세	42.9	19.6	29.4	4.9	25.6	18.0	2.1	21.7
30~39세	48.8	21.5	27.5	2.2	20.4	8.9	0.9	29.5
40~49세	59.6	13.0	28.4	4.5	16.3	12.0	2.7	25.4
50~59세	51.2	14.9	29.2	6.8	10.1	9.4	1.7	31.3
60~69세	45.5	15.6	21.1	7.7	8.6	8.9	1.9	34.4
70세 이상	33.6	11.8	20.0	5.0	3.6	6.2	0.9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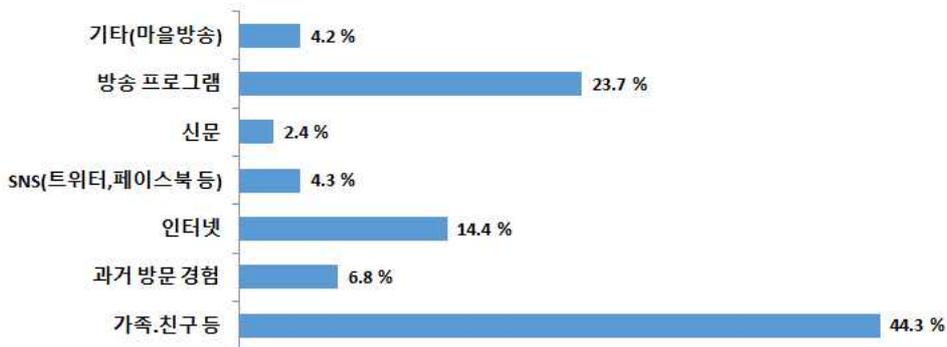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4) 전라남도 내 관광·여행 정보 취득 경로

전라남도 내 관광·여행 정보는 「가족, 친구 등(44.3%)」, 그 외는 「방송 프로그램(23.7%)」을 통해 획득

- 전라남도 내 관광 시 관광지나 여행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는 「가족, 친구 등(44.3%)」, 「방송 프로그램(23.7%)」, 「인터넷(14.4%)」, 「과거 방문 경험(6.8%)」, 「SNS(4.3%)」, 「신문(2.4%)」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족, 친구 등」은 40대 이상, 15~29세, 30대는 「인터넷」으로가 높게 나타남

<그림 10-4> 전라남도내 관광·여행 정보 취득 경로



<표 10-4> 전라남도 내 관광·여행 정보 취득 경로

(단위: %)

	계	가족.친구 등	과거 방문 경험	인터넷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문	방송 프로그램	기타
2017년	100.0	44.3	6.8	14.4	4.3	2.4	23.7	4.2
중부권	100.0	51.3	2.2	12.9	5.2	3.9	21.8	2.7
북부권	100.0	50.7	14.8	8.2	1.8	0.4	24.1	0.0
서남부권	100.0	33.9	6.6	19.4	4.8	2.1	25.2	8.0
남자	100.0	39.8	6.3	17.3	5.3	3.6	24.1	3.5
여자	100.0	49.4	7.4	11.0	3.0	1.0	23.2	5.0
15~29세	100.0	29.4	1.5	37.7	13.4	0.0	9.5	8.5
30~39세	100.0	28.7	5.8	33.2	14.8	0.0	17.6	0.0
40~49세	100.0	35.1	4.3	26.4	6.3	1.4	26.5	0.0
50~59세	100.0	47.3	6.5	10.2	0.8	4.9	27.6	2.8
60~69세	100.0	52.0	11.5	2.6	0.3	2.9	26.5	4.2
70세 이상	100.0	54.9	8.5	0.4	0.0	2.6	26.9	6.7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5) 독서여부 및 독서량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은 45.2%, 「2~3권(42.8%)」 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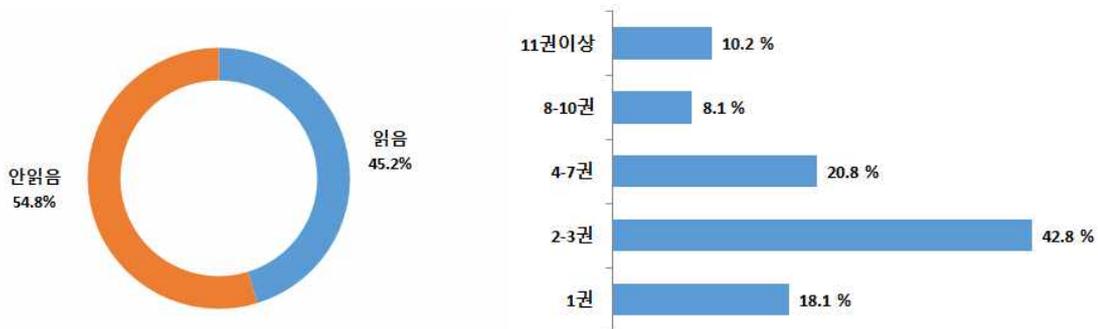
○ 지난 1년 동안('16.8.24.~'17.8.23.) 독서여부는「책을 읽음」이 45.2%이고「읽지 않음」이 54.8%임

-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책을 읽음」의 비율이 높음

○ 책을 읽은 사람의 독서량은「2~3권」이 4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4~7권(20.8%)」,「1권(18.1%)」,「11권 이상(10.2%)」순으로 나타남

- 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연평균 독서량은 6.6권임

<그림 10-5> 독서여부 및 독서량



<표 10-5> 독서여부 및 독서량

(단위: %, 권)

	계	책을 읽음	소계	1권	2~3권	4~7권	8~10권	11권 이상	연평균 독서 권수 ¹⁾	읽지 않음
2017년	100.0	45.2	100.0	18.1	42.8	20.8	8.1	10.2	6.6	54.8
중부권	100.0	40.9	100.0	17.9	33.5	24.9	8.8	15.0	7.0	59.1
북부권	100.0	40.6	100.0	15.4	30.0	41.4	9.6	3.6	5.4	59.4
서남부권	100.0	52.1	100.0	19.4	55.7	8.4	6.9	9.5	6.9	47.9
남자	100.0	50.9	100.0	15.8	47.0	19.7	9.0	8.5	5.7	49.1
여자	100.0	38.8	100.0	21.5	36.6	22.5	6.8	12.6	7.9	61.2
15~29세	100.0	85.0	100.0	1.8	39.1	32.1	11.5	15.5	7.9	15.0
30~39세	100.0	53.9	100.0	10.0	50.9	14.5	11.9	12.7	7.5	46.1
40~49세	100.0	62.8	100.0	18.7	44.5	17.8	10.2	8.7	4.9	37.2
50~59세	100.0	43.7	100.0	19.0	50.3	17.0	4.9	8.8	7.5	56.3
60~69세	100.0	32.7	100.0	32.3	39.7	15.7	5.0	7.3	6.3	67.3
70세 이상	100.0	21.7	100.0	41.9	32.5	18.8	2.9	3.9	4.4	78.3
중졸 이하	100.0	38.7	100.0	24.5	15.9	13.0	3.6	12.8	6.8	61.3
고졸	100.0	65.9	100.0	21.1	18.2	13.3	2.3	14.5	7.9	34.1
대졸 이상	100.0	79.3	100.0	10.3	17.4	18.0	4.8	15.8	8.7	20.7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주. 1) 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평균 독서권수

6)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71.0%가 「부족(부족한 편+매우 부족)」하다고 생각

○ 지난 1년 동안('16.8.24.~'17.8.23.)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부족(부족한 편+매우 부족)」이 71.0%로 절반이상이고, 「충분(매우 충분+충분한 편)」은 9.4%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 걸쳐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낮을수록 「매우부족」비율이 높아짐

<그림 10-6>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표 10-6>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단위: %)

	계	충분하다	매우충분	충분한 편	보통	부족하다	부족한 편	매우 부족
2017년	100.0	9.4	4.2	5.2	19.6	71.0	25.0	46.0
중 부 권	100.0	14.5	7.4	7.1	20.1	65.5	26.9	38.5
북 부 권	100.0	2.6	0.6	2.0	10.6	86.8	16.9	69.9
서 남 부 권	100.0	8.6	3.3	5.3	24.3	67.0	28.0	39.0
남 자	100.0	9.2	4.3	4.9	20.7	70.1	27.9	42.2
여 자	100.0	9.7	4.1	5.6	18.3	72.1	21.8	50.3
15~29세	100.0	12.3	4.0	8.3	25.3	62.4	38.3	24.1
30~39세	100.0	14.3	7.2	7.1	19.9	65.8	27.9	37.9
40~49세	100.0	10.1	5.5	4.6	21.8	68.1	27.9	40.2
50~59세	100.0	9.9	5.1	4.8	21.2	68.9	24.0	44.9
60~69세	100.0	7.8	4.1	3.8	17.0	75.2	18.6	56.5
70세 이상	100.0	6.6	2.0	4.6	15.6	77.8	20.7	57.1
중 졸 이하	100.0	5.3	1.0	4.3	18.1	76.6	25.7	50.9
고 졸	100.0	7.0	2.5	4.6	29.3	63.7	31.2	32.5
대 졸 이상	100.0	9.3	4.3	4.9	28.8	61.9	35.0	26.9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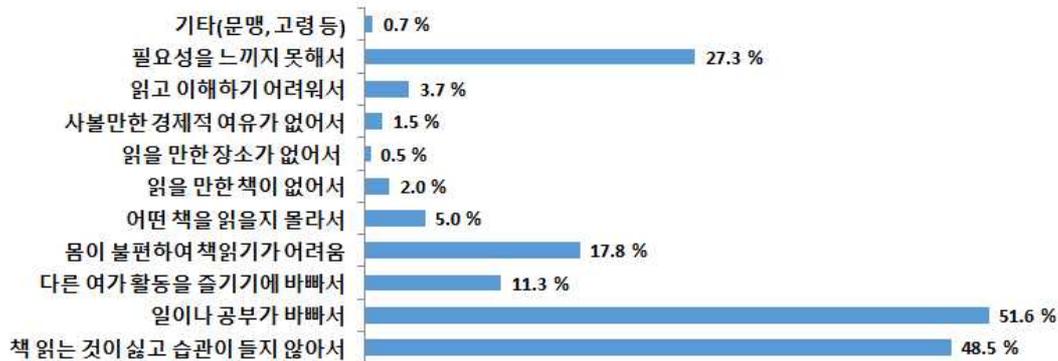
7)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독서량 부족한 이유는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51.6%)」

○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책을 읽지 못한 이유는「일이나 공부가 바빠서(51.6%)」가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책을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48.5%)」,「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7.3%)」,「몸이 불편하여 책읽기가 어려워서(17.8%)」등의 순으로 나타남

- 15세~29세, 30대, 40대, 50대, 60대는「일이나 공부가 바빠서」의 비율이 높고 70세 이상은「몸이 불편하여 책읽기가 어려워서」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그림 10-7> 독서량 부족이유



<표 10-7>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단위: %)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	몸이 불편하여 책읽기가 어려워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책을 사불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2017년	48.5	51.6	11.3	17.8	5.0	2.0	0.5	1.5	3.7	27.3	0.7
중부권	45.5	63.6	9.5	24.8	4.6	0.7	0.0	0.0	3.3	17.3	0.9
북부권	50.0	62.7	8.6	16.0	5.6	0.6	0.0	0.0	3.0	23.6	0.0
서남부권	50.3	34.7	14.3	13.4	5.6	4.0	1.2	3.5	4.4	37.8	0.9
남자	47.7	55.6	16.3	11.4	4.3	2.5	0.7	1.1	2.1	28.3	0.1
여자	49.3	47.2	5.8	25.0	5.8	1.6	0.4	2.0	5.5	26.3	1.2
15~29세	48.5	53.7	19.4	0.0	12.3	3.4	0.0	10.2	0.0	22.7	0.0
30~39세	49.2	72.5	18.3	0.9	2.3	2.1	0.0	0.0	5.8	19.1	0.0
40~49세	50.9	60.8	23.0	0.7	4.3	2.7	0.7	0.7	2.1	24.2	0.0
50~59세	51.0	59.7	11.0	7.2	7.2	1.7	1.4	0.9	2.7	27.1	0.0
60~69세	47.6	54.4	7.5	17.1	4.5	2.0	0.0	0.0	4.2	32.5	0.4
70세 이상	45.8	32.6	2.4	47.2	1.8	1.4	0.6	0.0	5.7	30.4	2.1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주: 자신의 독서량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